



# 스크린 수놓은 여성들의 삶과 목소리, 연대의식



다음 달 개막을 앞둔 '광주여성영화제' 캐치프레이즈는 그동안의 변화를 설파하고 도약하자는 의미를 투영한 '카운트 업(Count up)'이다. 연대의 목소리와 소수자 외침을 담은 작품들이 스크린에 펼쳐질 예정이다.

수·영화감독 신승은이 출연할 예정이다. 이어 양주연 감독의 '양양'이 개막작으로 상영된다. 40년 전 자살한 고모의 존재를 추적하며 가부장적 사고를 마주하고, 역사에서 지워진 여성을 기억해 나가는 내용.

주요 섹션으로 아시아 여성영화를 조명하는 '플래시 아시아'가 신설됐다. 여성 감독의 시선으로 아시아의 동시사를 조명하는 영화들을 기획 상영할 예정이다. 8~10일 각각 '가버나움', '페르세폴리스', '플랜75'를 선보이며 상영 후 흥소인 프로듀서의 토크가 이어진다.

'날선날선' 섹션은 이번 행사 캐치프레이즈에 어울리는 작품을 날카로운 시각으로 만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상영작으로 '콘크리트 녹색섬', '열개의 우물', '바로 지금 여기', '갯퍼스' 등이 있다.

다음으로 '피어나는' 섹션은 사회에 팽배한 차별적 상황에도 당당히 맞선 여성들의 희망을 다뤘다.

'철봉하자 우리', '사오나라 사랑해 사오나라', '담요를 입은 사람', '수선의 미학' 등이 관객들을 찾아온다. 이외 SF, 판타지, 호러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여성 영화 '리브라이즈 블리딩', '지구 최후의 여자', '기억의 집'이 스크린을 수놓는다.

특별섹션 '기억과 기록: 되살아나는 목소리'는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폭력에 탄압된 이들을 조명한다.

재일 조선인 2세 박수남 감독과 딸 박마의 감독이 노동과 일상, 증언기를 조명하는 다큐 '되살아나는 목소리', 5·18로 아들을 잃었던 고(故) 박순금의 '순금의 정원', 제주 4·3 피해자들의 성폭력 문제를

조명한 '목소리들'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제주, 부산, 대구, 전북여성영화제가 추천한 지역 기반 여성감독들의 작품을 만나는 특별 초청전 '지역여성영화제 교류전'도 마련된다.

강지호 작 '유빈과 권', 김유라의 '목달미', 윤가연 '당신이 그린 여름', 남가원 '이립잔치' 등을 상영하며 광주 출신 허지은 감독과 토크 프로그램도 예정돼 있다.

광주에서 만들어진 영화를 초청한 섹션도 있다. 김소영 '올리브', 정수진 '바질과 데이지', 이예은 'ZIP!', 백이현 '주인을 찾습니다'를 만나는 '메이 드 인 광주'가 그것. 또한 11회 영화제부터 시작한 단편 경쟁섹션 '퀸 당선치' 코너에서는 456편 접수작 중 12편을 선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장애인도 관람에 지장이 없도록 화면 해설을 삽입한 '배리어프리' 섹션도 진행된다. 광주에서 만들어진 송원재 감독의 '내 이름'을 올린다.

이외 한국 여성영화를 선도하는 '마스터 클래스'는 전고운 감독과 연계한 '여성 감독의 책상: 전고운' 전시를 CGV 광주금남로 전시공간에서 펼친다. 시의적인 여성 삶 문제를 다룬 '포커스 토크'는 디페이크 성범죄 추적기, 재일조선인 피해를 기록한 영화 '되살아나는 목소리' 등을 조망한다.

김재희 집행위원장은 "이 밖에도 '지역여성영화제 네트워크 간담회', '광주여성영화제의 밤' 등 다양한 행사들이 영화제를 풍성하게 채워나갈 것"이라며 "어려운 속에서 서로 모여 위로와 공감, 희망을 나누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23일부터 광주여성영화제 홈페이지 예매, 티켓 5000원(배리어프리 섹션 무료).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제15회 광주여성영화제 '카운트 업'  
11월6~10일 광주극장·CGV 광주금남로점



▶폐막작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영 시간표를 보니 총 50편의 영화(9개국, 장단편 각 21, 29편)가 라인업에 기대를 모은다. 총 13회 관객과의 만남(GV)부터 6회의 스페셜 토크, 광주에서 만들어진 '메이 드 인 광주' 작품까지 관객을 찾아온다.

광주여성영화제 추진위원회(집행위원장 김재희)가 "제15회 광주여성영화제"를 오는 11월 6~10일 광주극장 및 CGV 광주금남로점에서 연다. 먼저 11월 6일(오후 7시) 열리는 개막식에는 가

## 모든 것 내어줬던 어머니의 사랑, 버선으로 이미지화

류현자 초대전, 25일까지 전남대 박물관 역사관

버선, 물동이, 길쌈 등 전통적인 어머니 상을 표현하는 오브제는 많다. 그 가운데 버선은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물이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족들의 먹거리 등 일상을 책임지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던 어머니에게 버선은 필수 물품이었다.

어머니를 상징하는 버선을 비롯해 다양한 형상들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전남대박물관(관장 정금미)이 류현자 작가 초대전(사진)을 오는 25일까지 대학역사관 2층 기획전실에서 진행 중이다.

'사모곡·달빛 아리랑'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버선의 수려한 곡선미는 물론 연꽃, 목련, 단양, 달 등 어머니를 상징하는 형상들을 볼 수 있다.

전시에는 류 작가의 연작 20여 점이 출품됐다. 둥근 보름달이 비치는 저녁 오방색 피와 버선들의 움직임은 애잔하면서도 깊은 정감을 불러일으킨다. 작품은 우리 옛 어머니들의 따스한 심성과 정갈한 손길을 환기한다.

류 작가는 지금까지 전통미술을 모티브로 '네모산수'와 '사모곡' 연작을 선보이고 있다. 한국적 조형미와 전통적 감성을 품은 작품들은 다양한 표현 기법과 맞물려 포근한 정서를 환기한다.

정금희 박물관장은 "버선으로 이미지화된 작품은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넉넉했던 어머니의 사랑을 담고 있다"며 "깊어가는 가을날 전시장에 들러 있고 있었던 어머니의 따스한 마음과 그리움을 느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광주문화재단 지원으로 진행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해바라기와 달 '생명의 희망'



'생명의 희망'

박유자 개인전

31일까지 담양 명지미술관

박유자 작가의 '해바라기' 사랑은 어디까지일까? 작가의 상상 속에서 피어난 해바라기는 언제까지 피어있을까? 그 해바라기가 퍼트리는 씨앗은 어떤 꽃봉우리를 맺었을까?

해마다 색다른 모습으로 해바라기를 그려온 박유자 작가가 올해도 해바라기를 모티브로 전시를 열고 있다. 10월 한 달간 담양 명지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이번 주제는 '생명의 희망'.

'해바라기 작가'가 불리는 박 작가가 해바라기를 그리는 것이 무슨 대수랴. 그러나 매년 새로운 버전과 상상력으로 구현해낸 해바라기는 보는 이에게 감탄과 환희를 준다.

작가는 지난 2009년부터 15년간 해바라기에 전착해왔다. 그 집요한 '집착'이 특유의 울림과 메시지로 빛을 발하는 것은 소재에 대한 다른 해석 때문이다. 동일한 소재와 동일한 모티브를 독창적인 안목으로 그려낸다는 것은 쉽지 않다. 다른 대상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같은 소재를 다른 시각으로 형상화하는 것이 더 어렵다.

작가는 이번 작품에서 생의 기원인 '정자'를 화폭에 끌어올렸다. 천개의 씨앗을 품은 해바라기

를 '정자' 이미지로 치환하고 화폭을 신비롭게 물들인 달은 '난자'로 상징했다. "난자를 향해 달려가는 정자의 무리를 보듯" 그것을 해바라기와 연계한 것이다.

이번 작업을 위해 박 작가는 생물학과 교수를 찾아가 자문을 받았다. 다양한 자료도 탐독했다. 정자가 어떻게 움직여 어떤 경로로 난자를 향해 달려가는지 생물학적인 연구와 사유를 한 것이었다. 새롭게 연구하고 기존과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얻은 결실이라는 점에서 이번 작품들의 의미는 남다르다.

해바라기들은 달을 향해 환희에 찬 모습으로 너울너울 춤을 춘다. 끊임없이 생명의 씨들이 배출되고, 씨들은 궁극의 대상인 달을 향해 움직인다. 저마다 화폭을 환상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한어 품고 있는 듯하다. 그림이 전전하는 메시지는 보는 이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도 이채롭다.

김영순 미술학박사는 '천개의 씨앗, 생명을 움트게 하다'라는 글에서 "천개의 씨앗을 품은 해바라기가 박유자의 그림을 통해 우리들에게 희망, 축복, 행복 등을 가져 '생의 에너지'로 그 보폭을 넓히고 있다"며 "달을 향해 달려가는 해바라기 씨앗들, 그들의 결합이 우리의 희망, 생명 탄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고스트'와 동거 시작...3년 전 죽은 전처가 돌아왔다

11월24일까지 기본좋은극장

소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는 베스트셀러 소설가 '상중', 그는 소재 고갈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한 뒤 신작 소설의 영감을 얻으려 별의별 짓(?)을 다한다. 집필을 위해 무당 '육보살'을 집으로 불러 심령현상까지 체험하고 만다.

오라는 '영감'은 오지 않고 3년 전 죽은 전처 '한이'가 돌아오자 상중은 당황한다. 옆집 데 달친 격으로 유명 한이는 상중의 눈에만 보이고 상황은 조금씩 꼬여 간다. 자연스럽게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자 부인 '희전'의 오해는 깊어져만 가는데..

지난 2021년 광주에서 초연했던 연극 '고스트'가 24일~11월 24일 광주 무대에 다시 오른다. 플레이팩토리가 준비한 이번 작품은 화·금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6시 서구 기본좋은극장(상주중영로 90)에서 상연할 예정이다.

공연은 물건이 움직이거나 소음이 발생하는 심령 현상인 폴터 가이스트를 소재 삼아 '연극'과 '마술쇼'를 넘나드는 코믹 판타지다. 실관객들은 '배우들의 재미 있는 입담과 노련한 연기가 폭소를 자



연극 '고스트' 공연 장면.

〈플레이팩토리 제공〉

아낸다"는 등 후기를 남겼다.

현재 부인과 유명이 된 전처 한이가 펼치는 갈등 관계는 긴장감을 자아낸다. '소설가의 집'을 배경으로 한 연극인 만큼, 다양한 오브제와 감각적인 소품들을 활용해 몰입감을 더한다. 극중 육보살 파트 등에서는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코너도 마련된다.

플레이팩토리 이은지 기획자는 "광주뿐만 아니라 서울 대학로에서도 입소문을 타고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던 연극 '고스트'를 3년여 만에 광주에서 다시 선보인다"며 "몸을 아끼지 않는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 '일 년 치 웃음'을 다 드리고 싶다"고 했다. 전석 4만원. /최류빈 기자 rubi@